

### A study of eco-friendly automotive interior parts using PET materials

정선경\*, 이평찬, 유승을, 김현경, 김덕래<sup>1</sup>, 유재덕<sup>1</sup>  
자동차부품연구원; <sup>1</sup>(주)용산  
(skjeoung@katech.re.kr\*)

자동차의 러기지 트렁크룸에 적용되어 러기지룸에 적재된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동차부품인 러기지 보드(Luggage board)는 무거운 적재물을 적재할때에도 손상없이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성을 가져야 한다. 또한, TVOC, Formaldehyde, 연소성 등의 자동차 내장 부품 스펙을 만족하여야 한다. 현재 러기지보드의 소재로는 강성 및 단가면에서 매우 유용한 하드보드 및 MDF 등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으나, 이러한 소재는 TVOC 및 Formaldehyde의 방출이 매우 큰 소재로 이에 대한 대체 소재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.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실내의 VOCs 저감을 위하여 무독성 소재인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를 단일 소재로 적용하여 TVOC 저감 및 재활용이 용이한 러기지보드를 개발하였다. 기존 하드보드 대비 10%의 경량화를 달성하였다.